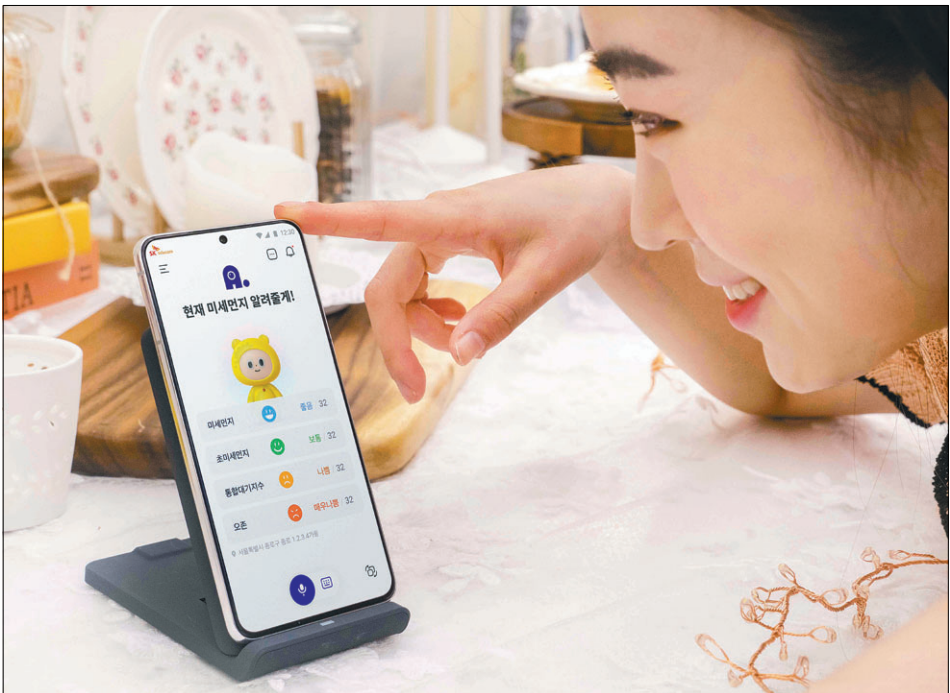




최근 안드로이드 오픈베타 버전을 선보인 SK텔레콤의 성장형 AI 서비스 ‘에이닷’(왼쪽 사진). KT의 AI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연구소장.



사진제공 | SK텔레콤·KT

“비서 아닌 친구” AI 키우는 SKT·KT

통신기업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설계한 AI를 말한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기존 AI보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기업들은 초거대 AI를 활용해 기존의 일방적 ‘명령’ 위주가 아닌 ‘교감하는 대화’가 가능한 AI 서비스의 상용화 실험에 나섰다.

●SKT, ‘에이닷’ 오픈베타

SK텔레콤은 성장형 AI 서비스 ‘에이닷(A.)’의 안드로이드 오픈 베타 버전을 최근 앱 마켓에 공개했다. 동영상과 음악 등을 추천해주고, 일정 확인이나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에이닷은 특히 고도의 자연어 처리 및 감정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강점이다. 거대언어 모델(GPT-3)을 기반으로 해 일상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SKT, 앱 ‘에이닷’ 베타버전 공개 자유 주제로 일상적인 대화 가능

KT, 육아·법률 등 전문상담 제공 서비스 개발 한창…연내 상용화

SK텔레콤은 그동안 거대언어모델의 한국어 특화 버전을 자체 개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자유 주제로 한국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자유 대화 중 원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목적 지향 대화로의 자연스러운 전환도 가능하다. 학습이 필요한 AI 언어 모델의 특성상 사실이 아닌 답변이나 맥락을 벗어난 대화가 간혹 나올 수 있지만, 고객과 교감하는 기간을 통해 성장하며 진화할 것이라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은 하반기 중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알아서 재생해 주는 ‘마이 TV’를 비롯해 게임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에이닷은 AI 시대를 맞아 사람을 향한 따뜻한 기술을 선보이고자 개발했으며, 앞으로 지

속 성장해 나갈 서비스다”고 말했다.

●KT 연내 상용화 목표

KT도 초거대 AI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AI원팀’에서 다자간 공동연구로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와 연구기관은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한 기술을 제공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적용했다. AI원팀은 연내 초거대 AI 모델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KT는 사용자 감성까지 공감하는 차세대 AIOC(AI 기반 고객센터)과 육아나 법률 등 전문적 분야에서도 사람처럼 연속 대화가 가능한 ‘멀티턴 전문 상담’ 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330만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는 ‘기가지니’의 대화 품질 혁신에도 나설 계획이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은 “KT 초거대 AI 기반으로 진화된 한국어 언어모델이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큰 특징인 ‘공감능력’을 갖춘 최초의 AI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답러닝 학습을 거쳐 사람이 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언어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과거 대화 기억을 되살려 사용자와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하고,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한 네이버는 AI 스피커에도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했다. 지난달 클로바 AI 스피커에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폭폭사전’ 기능을 출시했다. AI 스피커에 초거대 AI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거대 AI 적용으로 자연스럽고 풍부한 대화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속적 대화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공룡과 우주, 반려동물 3개 주제로 대화가 가능한데, 향후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확장하는 한편, 어른들도 스피커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 등 다양한 생활 주제를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정석근 네이버 클로바CIC 대표는 “그동안은 AI 스피커에게 주로 ‘명령’을 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은 경험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 직원이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활용해 건강검진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LG전자 로봇 ‘클로이’ 의료기관 공급 확대

LG전자가 ‘클로이’ 로봇을 의료기관에 잇따라 공급하면서 로봇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의료재단 종합검진센터에 ‘클로이 가이드봇’을 공급했다. 서울 강동성심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에는 ‘클로이 서브봇’을, 용인 소재 병원에는 ‘클로이 UV-C봇’을 각각 공급했다. LG전자는 지난 2020년 서울대병원 대한외래를 시작으로 이원의료재단, 국립암센터, 개인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 클로이 로봇을 지속 공급해 왔다.

LG전자는 ▲환자와 방문객을 위한 시설 위치 안내 ▲의료 물품 배송 등 의료진 보조 ▲비대면 방역을 통한 위생 관리 등 로봇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봇은 터치스크린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병원 내 시설과 이용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준다. 서브봇은 자율 주행 및 장애물 회피기술을 기반으로 혈액 검체나 의약품 등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배송한다.

UV-C봇은 병실, 검사실 등 수시로 방역이 필요한 공간 내 비대면 방역 작업에 최적화됐다. 관리도 편리하다. 운영자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로봇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용 이력, 운행 스케줄 등을 관리한다.

노규찬 LG전자 로봇사업담당 상무는 “내재화된 핵심 로봇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LG만의 차별화된 로봇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 도움이 되는 로봇 경험을 지속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NHN, MZ세대 겨냥 ‘캠프닉’ 복지 마련

NHN이 MZ세대들의 취향에 맞춘 ‘캠프닉(캠핑+피크닉)’ 복지 제도를 마련했다. NHN은 최근 늘어난 레저 활동 수요에 맞춰 휴양시설을 캠핑 사이트로 확대하고, 여름 시즌에 맞춰 자체 제작한 ‘캠프닉 세트’를 전 직원에게 증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주와 강릉, 속초, 경주 등 전국 각지에 리조트, 호텔, 펜션같은 직원 전용 휴양시설을 제공해 온 NHN은 캠핑족 임직원들을 위해 캠핑사이트 2곳을 선정해 신규 휴양시설을 오픈했다. 캠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원주 캠퍼슬로우’와 ‘진천 더 빌리지’에 NHN 전용 사이트를 열었다.

NHN은 또 임직원들이 야외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위패밀리 고잉아웃’ 패키지를 제작해 증정할 계획이다. 위패밀리 티셔츠 2종과 캠핑의자 2개, 식기가 포함된 휴대용 테이블 세트, 아이스박스나 캐리어를 꾸밀 수 있는 그래픽 스티커팩 10종 세트로 구성돼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삼성전자 생활가전, 유럽을 홀렸다

영 위치 어워드 ‘올해 최고 대형가전’ 왕실 ‘퀸 로열 워런트’ 인증 이어 패커스웨덴·덴마크선 냉장고 부문 1위에

삼성전자 생활가전이 유럽 소비자 매체 평가에서 잇달아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영국 소비자연맹지 ‘위치’지가 주관하는 ‘위치 어워드 2022’에서 ‘올해 최고의 대형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 생활가전 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왕실로부터 가장 권위가 높은 ‘퀸 로열 워런트’ 인증을 받은 데 이는 패커라는 것이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위치는 2007년부터 매년

전문가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IT(컴퓨터·모바일), 가전 등 총 11개 부문별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 브랜드를 선정해 ‘올해 최고의 브랜드’를 수여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소비자 매체 평가에선 삼성전자 냉장고가 1위로 선정됐다. 최고 제품으로 선정된 삼성 냉장고(RR40M7165WW)는 1도어 냉장 전용고다. 스웨덴 소비자 매체 ‘라드앤론’은 1도어 냉장 전용고 평가에서 47개 모델 중 삼성 냉장고에

80점을 주고 1위로 선정했다. 덴마크 소비자 매체 ‘탱크’도 삼성 냉장고에 최고 점수인 79점을 주고 1위로 뽑았다.

이강협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유럽의 공신력 있는 소비자 매체 평가에서 연이어 최고 제품으로 선정되며 삼성 생활가전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현지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뛰어난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23일 (월) 음력: 4월 23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자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몰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남편으로 인한 관계수를 조심 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맞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이성문제, 탈선도 조심하라.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절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앓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원숭이띠를 만나 자문을 구하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닭은 기량을껏 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고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는 노력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기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반복되는 일로 피곤한 날이다.						

오늘의 날씨			23일(월)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17 29	 16 24	 15 31	 17 27	 16 31	 16 29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17 27	 16 31	 17 32	 17 30	 17 32	 18 25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17 29	 19 25	 19 25	 17 29	 19 25	 19 25
창원	0/0	제주	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7 29	 19 25	 19 25	 17 29	 19 25	 19 25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3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고종철	엔터테인먼트부장 안재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건부장 고종철	인재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